

대만의 티베트학(藏學)연구와 동향

심혁주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목 차 >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대만의 티베트연구(藏學) 주요기관 | 참고문헌 |
| III. 대만의 티베트연구(藏學) 학자군(群)과 연구동향 | Abstract |
| IV. 대만의 티베트연구(藏學) 변천과 동향 | |

Key words(중심용어): 대만(Taiwan), 티베트학(Tibetanology), 민족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ities Studies), 대만국립정치대학교(National Cheng-Chi University), 티베트 동향(Tibet's Trends)

국 문 요 약

오늘날 ‘티베트연구’ (藏學)의 중심무대는 중국(中國)과 대만(臺灣)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당대(當代)에서 현재까지 티베트연구의 전문 학자와 연구기관 및 관련 학술지발간의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외의 어떤 국가와 지역보다도 질과 양의 밀도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중국의 티베트연구 경향과 특성에 관하여 우수한 논문이 학계와 공유되었다. 이에 반해 장학연구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의 연구 경향과 발전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의 필요성과 일차적인 연구목적이 제기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미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발표되고 공유된 중국의 티베트연구 동향에 반해, 또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의 티베트연구 동향과 특징은 아직 세부적으로 연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문은 당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티베트연구 상황과 변천의 동향을 검토하여 중국과의 이동(異同)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대만의 주요 티베트 연구기관과 연구학자군(群), 그리고 학자들의 논문 경향을 분석하여 대만의 티베트 연구특징과 동향을 이해하고자한다. 세 번째, 오늘날 티베트의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연구 또는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적지 않은 훌륭한 연구 성과를 집적(集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티베트연구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데 유용한 공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국내 티베트연구의 활성화와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I. 서론

오늘날 장학(藏學)연구, 즉 ‘티베트학’(Tibetanology)연구의 중심무대는 중국(中國)과 대만(臺灣)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티베트연구의 전문 학자와 연구기관 및 관련 학술지발간의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외의 어떤 국가보다도 질과 양의 밀도가 우월하기 때문이다. 물론 1959년 14대 달라이 라마의 인도망명 이후 서방세계의 티베트에 대한 관심과 학문성과 또한 간과할 수는 없으나 전문연구자와 기관, 정부지원의 숫자와 밀도를 고려한다면 역시 대만과 중국의 장학연구는 우선시된다.

국내학계에서도 개인적 혹은 학제적 집단연구를 통하여 티베트에 대한 학술성고가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장학’이 티베트 인문학전반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범위와 내용이 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티베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의 장학연구 환경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문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전개될 대만의 장학(藏學)연구 상황, 즉 전문 연구자집단과 연구기관, 학술성과, 발행되는 전문 학회나 간행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발표된 이동률의 「중국의 티베트연구(藏學) 동향과 티베트정책」과¹⁾(이동률, 2005), 김성수의 「중국 티베트학의 성립 배경과 티베트사 서술의 특징」(김성수, 2008)의 연구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두 편의 연구내용은 모두 중국 속의 티베트를 겨냥하여 작성한 것으로 중국학계와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학문적 시선과 정책을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동률의 「중국의 티베트연구(藏學)동향과 티베트정책」은 본 연구의 일차적인 동기와 목적의식을 부여했다. 이동률의 논문은 중국정부와 학계의 티베트 연구에 대한 현실적 의도와 정치적 목적을 분석하는데 그 방향 점과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동률은 그의 논문에서 중국의 티베트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선 중국에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티베트와 티베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80년대 이후 외부 연구에 의한 자극과 방어적 차원에서 당과 정부의 주도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당과 정부에서 ‘中國藏學研究中心’과 같은 관변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학술지를 발행하고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중국에서 티베트 연구의 주제와 내용은 정부와 당의 현실적 필요와 같은 연관성 하에 전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정책기조와 방향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1) 이동률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티베트 연구 동향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즉 경제, 정치, 국제관계의 논문경향과 편수 및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대 티베트 정책과의 연관성을 점검하고 있다.

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동률이 중국 측의 티베트연구 동향과 실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티베트 연구의 또 다른 학술무대인 대만의 티베트 연구 동향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치와 학술이 연계성을 가지고 저서와 프로젝트연구가 상호밀착형 구조를 지니고 있는 중국의 티베트연구에 비해 대만은 어떤 방법과 특성을 견지하고 있는가? 또한 어떠한 연구 집단과 기관이 대만의 티베트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초창기(60-80년대)비교하여 볼 때, 현재는 어떤 연구의 특성과 패러다임(Paradigm)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목적이자 동기이다.

중국 장학연구의 특징이 순수학문 영역이기보다는 현실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중시되고 활성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당의 정책과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지닌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연구자의 개인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연구결과가 편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장학연구가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대부분 일관된 결과와 홍보의 의도(민족통합과 국가통합)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만은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방식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대만의 티베트 연구자들이 대부분 서방세계, 즉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왔으며 정부와 연구기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자유로운 학술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상황을 주지하면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미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발표되고 공유된 중국의 티베트연구 동향에 반해, 또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의 티베트연구 동향과 특징은 아직 세부적으로 연구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문은 당대에서 현재까지 대만의 티베트연구 상황과 변천의 동향을 검토하여 중국과의 이동(異同)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대만의 주요 티베트 연구기관과 학자군, 그리고 학자들의 논문경향을 분석하여 대만의 티베트 연구특징과 동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세 번째,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로컬리티’(locality)에 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 로컬리티는 지역성 혹은 지방성을 일컫는다. 따라서 ‘로컬(local)’은 국가 내지 중앙과의 관계에서 보는 변경(邊境) 또는 변강(邊疆)지역으로 이해되는 수직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로컬의 개념은 중국과 티베트와의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한족과 소수 민족, 중앙과 지방, 기득권자와 피기득권, 소유과 배분의 관계에 있어서 로컬리티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과 현상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생겨난 ‘중심부’ 및 ‘다수’의 가치에 대비되는 ‘주변부’ 및 ‘소수’의 가치를 연구하는 로컬리티에 대한 연구가 우리학계에서 더욱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로컬리티 문제를 좀 더 생동적으로 구체적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네 번째, 오늘날 티베트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 또는 학계간의 연구를 통하여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집적(集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티베트연구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는데 유용한 공구로서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국내 티베트연구의 활성화와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인용 혹은 참조하는 학술기관과 문헌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오늘날 臺灣國立政治大學校의 「民族研究所」는 대만 티베트연구에 있어 가장 많은 연구자를 배출하였으며 관련 연구업적이 누적되어 있는 티베트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족연구소가

기획하고 주관하여 발행하는 티베트관련 학술지 예컨대, 『西藏研究論文集』과 『西藏研究會訊』 그리고 『民族學報』 등은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티베트 학술지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면상의 제한으로 주로 민족연구소의 출신의 연구자와 연구 성향 및 연구방향을 시기별로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는 민족연구소가 대만의 티베트연구학회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臺灣中央研究院의 「言語歷史研究所」와 臺灣大學校의 「人類學研究所」 그리고 文化大學校의 「華僑與民族研究」 역시 티베트연구에 일조를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였다. 세 번째, 대만정부 행정원 산하의 「蒙藏學術研究中心」은 티베트연구의 중장기 학술과 문화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련 학술지 『蒙藏現況』을 발행함으로써 최근 티베트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과 발행지 또한 본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II. 대만 티베트연구(藏學)의 주요기관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크게 중국의 ‘邊疆’ 혹은 ‘소수민족연구’의 범주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1930-40년대 대만학계의 티베트연구는 중국 학술계의 변강 연구의 전통을 계승해 ‘邊政 연구’라는 타이틀로 전개되었다.²⁾ 때문에 대만은 1980년대까지 티베트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인 학술환경이 성숙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증언과 학술적 자료는 중국의 대표적 티베트 연구자인 王堯³⁾ 교수의 “藏學研究台灣”(王堯, 1989, 119-128)와 대만 林恩顯 교수의 “近三十年來中國大陸學者的西藏研究分析”(林恩顯, 1989, 305-313)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1984년 일본의 저명한 티베트 학자 山口端風(Zuiho Yamaguchi)는 대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대만의 중국 변강 연구(티베트 포함)수준은 清末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했다.⁴⁾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대만은 대륙과의 특수한 상황(역사적, 정치적)때문에 중국의 변강과 민족사 및 티베트 연구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 성과가 풍부하지 못하며 전문가 배양이 부족(後繼無人)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만학계는 전문적인 중국 변강과 소수민족 연구 및 인재배양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관련학과와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기획하였다. 예컨대, 정치대학교의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 대만대학교의 인류학연구소, 문화대학의 화교 및 민족연구소, 사범대학교의 중문연구소 등이다.(도표 참조) 이 중 정치대학교의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는 대만의 대표적인 중국 소수민족과 티베트 연구의 출발지로 손꼽힌다.

2) 그 연구대상에는 중국 역대의 변강 연혁, 행정 기구의 설치, 지리 고찰과 해석, 변강 정책, 종교 신앙, 민족 민속, 언어 문자 등이 포함된다.

3) 한족으로 1951년 남경대학 중문과를 졸업했다. 1953년 북경 중앙민족대학원에서 藏語(티베트어)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중국의 대표적인 티베트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티베트 언어와 역사를 주로 연구하며 현재 중앙민족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4) 山口端風는 1984년 4월, 臺北에서 개최된 國際邊疆學術會議에 참석하고 토론을 진행 하던 중 참석자의 질문에 대만의 변강연구 수준, 특히나 藏學(티베트학)의 학술수준에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1. 대만국립정치대학교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

소위 대만의 티베트연구가 1세대를 지나 2세대의 왕성한 연구 활동이 시작되기 전, 즉 1980년대 말까지 대만학계의 변강과 티베트 연구는 아래의 학교와 산하 연구기관이 주도하였다.

1990년대 이전까지 대만학계의 중국변강연구(티베트 포함)

과정과 교수현황(林恩顯, 1989, 20)

학과 및 연구소	커리큘럼 명칭과 (담당교수)	개설된 커리큘럼 수	교수 수
정치대학교 <변강연구소>	①중앙정부 변강정책연구(劉義棠) ②동북史 연구(李學智) ③만주사회와 문화(陳捷先) ④만주어문(李學智) ⑤동북지리연구(蔣君章) ⑥몽고史연구(唐屹) ⑦몽고어문(哈勘楚倫) ⑧몽고사회와 문화(唐屹) ⑨몽고정치제도(李疏澍) ⑩몽고와 소련관계연구(李疏澍) ⑪몽고지리연구(蔣君章) ⑫신강역사연구(林恩顯) ⑬신강지리연구(蔣君章) ⑭돌궐사회와 문화(唐屹) ⑮위구르어문(劉義棠) ⑯티베트史연구(歐陽無畏) ⑰티베트어문(蕭金松) ⑱티베트사회와 문화(蕭金松) ⑲티베트지리(蔣君章) ⑳중공소수민족정책연구(趙洪茲) ㉑변강현황연구(林恩顯) ㉒변강과 국방연구(葛敦華)	21	12
정치대학교 <사회학과>	①변강통론(林恩顯) ②변강민족사(劉義棠) ③변강지리(蔣君章) ④변강사회와 문화(胡良珍) ⑤몽고어문(哈勘楚倫) ⑥티베트어문(蕭金松)	6	6

문화대학 <민족 및 화교연구소> ⁵⁾	①변강민족사(丙逸夫) ②변강사회와 문화(林恩顯) ③변강정교제도연구(呂秋文) ④중공소수민족정책연구(呂秋文) ⑤현대변강개설(林恩顯) ⑥외몽고 대외관계(呂秋文) ⑦티베트 대외관계(呂秋文) ⑧변강중점연구(多人) ⑨티베트어문(蕭金松) ⑩몽고어문(包克)	10	6
대만대 <역사학과>	①위진남북조사(鄭欽仁) ②요금원사(王德毅) ③청사(陳捷先)	3	3
대만사범대 <역사학과>	①요금원사(李府桐) ②몽고어문(哈勘楚倫)	2	2
대만사범대 <중문연구소>	①서역사 연구(陳慶隆) ②티베트 어문(幸勉)	2	2
합계	47	44	31

상술한 연구기관 이외에도 「蒙藏學術研究中心」⁶⁾, 「中華佛學研究所」⁷⁾, 「佛光大學文化研究所」⁸⁾등에서 티베트 관련 개설과목과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술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대만학계에서 티베트연구는 정치대학교의 민족학과와 변정연구소(훗날 민족연구소)에서 그나마 체계적인 개설과목과 연구진을 보유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타 학교와 연구기관에서도 티베트에 관한 커리큘럼을 개설 하고 있었으나 해당 전문가와 지원의 부족으로 학계와 공유할 수 있는 논문과 저서는 부족했다. 이는 대만의 티베트 연구가 1차적으로 시작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20여년의 석사논문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의 티베트 연구의 점유율과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도표 참조)

- 5) 1972년에 설립되었다. 본 연구소는 '화교'와 '민족연구'의 2개조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민족연구는 세부적으로 (1)대만산지 토착민의 현대화문제; (2)대만 漢人거주지의 조사연구; (3)티베트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연구소 내 티베트와 관련하여 개설된 과목은 ①藏文, ②티베트의 대외 관계, ③티베트政教제도, ④중공소수민족정책연구, ⑤중국변강사회와 문화, ⑥현대변강현황, ⑦변강문제연구 등이 있으며 티베트에 관한 논문은 본 연구소의 출판물인 『民族與華僑研究所學報』에 실리고 있다.
- 6) 대만 행정원 산하로 1984년에 설립되었다. 재단법인 '中華民國蒙藏學術基金會'의 후원으로 매월 몽고와 티베트에 관하여 학술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蒙藏現況』과 같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 7) 원래 중국문화대학내의 부설연구소였으나 1987년에 독립하였다. 티베트어문과 티베트 불교경전 등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총 5회의 『中華佛學學報』를 출간하였다.
- 8) 1989년에 설립되었다. 연구소 안에는 (1)印度佛學 (2)中國佛學 (3)西藏佛學的 연구영역이 3개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티베트불학 연구조에는 ①藏文 ②現觀莊嚴論 ③入中論 ④因明研究 ⑤宗義研究 ⑥西藏佛教史 등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현재 민족학과는 정치대학의 사회과학원소속이다. 본과는 1955년 정치대가 대만에 복교한 이후 최초 5개 학과중의 하나로, 그 연구와 학습 목표는 변정인재의 배양에 편중되었다.⁹⁾ 오늘날의 민족학과가 있기까지 초대소장 胡耐安의 노력과 3차례의 개명의 시기가 있었다. 民國44年, 남경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邊政學系로 출발한 본과는 民國58年, 「民族社會學系」(Department of Ethnology and Sociology)로 개명한다. 그리고 民國70年, 다시 한 번 「社會學系」(Department of Sociology)로 개명한다. 과목의 커리큘럼도 민족학과 변강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을 수용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학과 사회복지 방면이다. 그 중심에는 林恩顯, 陳小紅, 丘其嫌등이 학과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주도하였다. 民國82年, 결국 오늘날의 「民族學系」(Department of Ethnology)라는 정식명칭과 독립된 학과로 인준되었다. 3차례의 개명을 진행한 이유는 대만사회에서 변강에 대한 인식부족과 취업난 그리고 학생들의 전과(轉科)가 빈번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학과의 변천사와 더불어 1969년 「邊政研究所」(Institute of China Border Areas Studies)가 설립되었는데 몽고학자 扎奇斯欽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그는 초반기 연구소의 교학중점을 변강의 역사와 언어에 두었고 동북(만주), 몽고, 신강, 서장(티베트)의 4개 중점 영역을 설정했다. 당시 周昆田, 李元簇, 劉義棠, 林恩顯등이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본 연구소는 변강의 역사, 언어, 민족, 사회의 체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1988년, 몽고학자 唐屹교수가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1990년 「民族研究所」(Institute of Nationalities Studies)란 오늘날의 명칭으로 개명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대만 원주민연구를 위한 「臺灣山地組」가 연구소 내에 새로운 중점영역으로 설정되었다. 대만 원주민연구의 학계 전문과와 행정 인력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 민족연구소는 2001년부터 정식으로 박사 반 연구생¹⁰⁾을 뽑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만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민족학과는 반세기에 걸쳐 「邊政-民族」교학의 맥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48명의 학사, 12명의 석사연구생, 6명의 박사 반 연구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대만에서 대만대학교의 인류학과에 이은 두 번째로 학부-석사-박사의 체계적인 인류학, 민족학 연구의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民國58年, 변정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따르면, “국가가 변강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받들어 변강 학술 연구와 교육을 통해 변강 연구와 변정에 관련한 고급 인재를 배양하는데 있으며, 정부가 변강을 중건하는데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실제 업무에서는 연구와 대학원생 배양을 모두 중시했는데 당시 개설한 필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 9) 1957년에 제정할 필수 교과 과정으로는 변정 통론, 변강 어문, 변강 종교, 변강 역사, 변강 지리, 변강 사회, 인류학, 민속학, 언어학, 중화 민족지, 변경 문제 연구, 변강 건설 연구 등이 있었다.
- 10) 박사반의 커리큘럼은 석사 반 연구영역의 심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분야는 (1)邊疆少數民族研究 (2)當代國際變局中國家與民族問題之間的各種影響與關聯 (3)當代民族與族群研究的認知觀點이고 이에 상응하는 필수 이론과목은 「民族學」, 「民族史」, 「民族誌」 등이다. 졸업논문은 연구소의 성격상 현지답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변정연구소 커리큘럼(民國 74년)(林恩顯, 1993, 182-185)

필수과목

과목명칭	학점	비고
中共政府邊疆政策之研究	4	*
邊疆歷史研究	4	(蒙古, 西藏, 新疆, 東北, 西南)
邊疆社會與文化	2	(蒙古, 西藏, 突闕維吾爾, 滿洲, 西南)
邊疆語文	8-10	(蒙古, 西藏, 突闕維吾爾, 滿洲, 西南)
(1)中國邊疆通論 (2)中國民族志 (3)中國邊疆民族史	2	학부필수과목
人類學導論	2	학부필수과목

선택과목

과목명칭	학점	비고
研究方法	2-4	*
邊疆政制研究	2	(蒙古, 西藏, 突闕維吾爾, 滿洲, 西南 중에서 한 과목 선택)
邊疆地理研究	2	(蒙古, 西藏, 新疆, 東北중에서 한 과목 선택)
邊疆宗教研究	2-4	(1)불교연구 (2)이슬람교연구
邊疆經濟研究	2	*
邊疆教育研究	2	*
邊疆與國防之研究	2	*
各國少數民族政策之研究	2-4	*
中國邊疆涉外關係研究	2-4	*
族群關係研究	2	*
民俗學研究	2	*
邊疆專題研究	2	*
蒙古專題研究	2	*
西藏專題研究	2	*
新疆地區專題研究	2	*
東北地區專題研究	2	*
西南地區專題研究	2	*

초창기 변정연구소가 설립될 당시에는 扎奇斯欽, 周昆田, 劉義棠, 林恩顯 등의 1세대 변강연구의 권위자들이 차례로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1970년대까지 이들이 학과와 연구소를 주도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연구 영역이 점차 넓어져 역사, 언어, 민족, 사회학의 각도에서 중국 변강 지역을 연구하고, 아울러 학제 간 연합 방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치대학의 변정연구소의 성립은 대만 학계의 변강연구(티베트 포함)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변정연구소에 이어 1990년 설립된 민족연구소의 티베트 관련 주요 敎學과 담당교수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 1992년 기준(민국 81년)티베트관련 개설과목 상황

개설과목명칭	담당교수	필수	선택	학점 상/하
藏族歷史	王吉林	v		2/2
藏語	蕭金松	v		3/3
藏傳佛教	蕭金松		v	2/2
中國民族志	蕭金松	v		2/2
西藏專題	張駿逸		v	2/2
西藏文化與社會	蕭金松	v		2/2

상술의 도표들에서 확인되듯이, 대만의 초창기 티베트연구는 정치대학교의 민족학과와 연구소에서 티베트관련 커리큘럼과 담당교수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대만의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우월한 학술환경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초창기(1971-1992) 20년간 티베트 관련 논문은 변정연구소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었다. (아래의 도표 참조) 변정연구소에서 1992년 7월(1990년 이후 변정연구소는 민족연구소로 개명함)까지 학계에 제출하고 공유한 논문은 118편이었다. 통계표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民國60년-81년)

지역종류	동북	몽고	신장	티베트	서남	대만산지	기타	총계
정치	2	13	11	8		2		36
사회 문화	1	9	6	3		4	1	24
경제		4	1	1				6
언어 문자		2				1		3
민족관계 외교	5	6	7	7		1	5	31
군사	1	3	3	1				8
종교				1			1	2
사료								1
기타						2	5	7
합계	10	37	28	21	0	10	12	118

통계표에서 나타나듯이 몽고 연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장, 티베트, 동북(만주족), 대만산 지 순인데, 종류별로 보면 민족 관계, 외교, 사회 문화 순이다. 이러한 동향은 훗날 민족연구소가 출범한 이래 나타나는 논문의 경향과는 매우 다르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에서 논할 것이다.

2. 티베트 연구 단체와 출판물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의 티베트관련 출판물과 집담회의 출범은 대만학계에 티베트연구를 촉발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초를 제시했다. 우선, 초창기 『邊政研究所年報』의 출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출판물은 1970년에 창간호를 출판했고, 1988년까지 모두 19호를 출판하였다.¹¹⁾ 이 간행물은 매 호 300쪽 전후로, 당시 대만에서 이 분야(중국 변경민족)의 비교적 높은 학술 수준을 지닌 전문 잡지로 평가받는다. 19호까지 발표한 각종 논문은 모두 174편으로, 분야별 통계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政治大學校 『邊政研究所年報』(1-19기)분야별 통계표(林恩顯, 1984, 189)

지역 종류	동북	몽고	신장	티베트	서남	대만산지	기타	총계
정치	9	7	2	3				21
사회 문화	4	4			1	4	1	14
경제						2		2
언어 문자	4	3	3	5			1	16
민족관계 및 외교	3	6	2	3	2		14	30
법률		3						3
역사와 고증	10	13	9	2	1		5	40
사료연구 개황과 평가	4	1	1	1	1		1	9
종교		4		8		1		13
기타	2	2	3	3	1	1	14	26
합계	36	41	20	23	5	7	36	174

두 번째, 민족연구소의 「邊政學會」에서 창간된 『邊政學報』는 1962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1979년까지 모두 17호를 발간하였다. 잡지에 발표된 각종 논문은 모두 209편으로, 그 가운데 학술 논문과 조사 보고는 191편으로 전체 논문의 90%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주요 저자로는 胡耐

11) 『邊政研究所年報』는 1993년 『民族學報』로 개명하여 출간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민족학보'와 '변정연구소연보'는 역사적으로 계승 관계에 있어서 처음 간행한 민족학보는 제 20기로 나왔다.

安, 札奇斯欽, 劉義堂, 林恩顯, 哈勒楚倫등이었는데 이들이 1세대 대만 학계의 변강연구와 인재양성을 주로 담당하였던 좌장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티베트관련 연구 단체의 건립 또한 주목할 만하다. 1985년 5월에 변정연구소는 티베트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南華협진회(당시의 이사장 梁永章)의 지원을 받아 당시 연구소 소장 林恩顯이 추진하여 1986년 『西藏研究會』를 결성하였다.¹²⁾ 그리고 연구의 결과물로서 「西藏研究會訊」 15호¹³⁾와 『西藏研究論文集』 4집을 출판하여 학계와 공유하였다. 이 연구단체와 출판물은 총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조¹⁴⁾, 역사조¹⁵⁾, 문화조¹⁶⁾, 현황조¹⁷⁾등이고 총 간사는 티베트어와 종교의 담당자인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 부교수 蕭金松이 맡았다. 훗날 蕭金松이 인도와 네팔로 유학을 떠난 뒤는 林冠群이 그 뒤를 맡았다. 1992년에는 티베트 연구의 연구 범위를 확대해 『邊疆問題研究會』로 개편하였다. 이 단체는 매년 연구 계획을 세우고, 매월 토론회와 보고회를 가졌다. 이 시점을 계기로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1세대의 초석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¹⁸⁾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성립된 「西藏協會」도 있다. 이는 2002년 12월 15일 대북의 '福華飯店'에서 성립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서장협회를 성립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티베트문화와 종교를 보존하고 홍보한다. (2)대만에 거주하는 티베트청년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린다. (3)대만에 거주하는 티베트민족(藏族)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킨다. 이 모임에는 대만의 저명인사가 참여하여 후원을 약속하였다. 예를 들어, 대만 입법원 원장 梁蕭戎과 몽장위원회 吳化鵬 위원장 그리고 葛維新(당시 海工會의 부주임), 몽장위원회 티베트 사무처장 劉學妣 등이다. 이 협회의 특징은 주요 행정인사와 구성원이 대만에 거주하는 티베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覺安茲仁(이사장), 娥丹文茂(부이사장), 覺媚桑度(부이사장) 등이 이 협회의 주요 간부이자 행사를 주관하는 핵심 인력이었다.

대만에서 정치대학의 민족연구소 외에도 티베트연구는 대만대학교 인류학과(인류학연구소)(尹建中, 1993, 125-142)와 대만 중앙연구원의 「言語歷史研究所」와 「民族研究所」 역시 티베트연구에 관한 영역과 학자가 나뉘어 있다. 대만대 「人類學研究所」는 인류학 이론기초방면과 대만 고산족(高山族)을 연구의 중점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중앙연구원은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와 역사 및 민족학을 중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학술기관으로는 대만 행정원 산하의 「蒙藏委員會」가 티베트연구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관련 학술지 『蒙藏現況』을 발행함으로써

12) 당시 『西藏研究會』 건립의 주축이었던 林恩顯과 王吉林은 설립을 선포하면서 이후 티베트 연구를 통하여 漢/藏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규명하고 대만에서 티베트문제의 체계적인 학술화를 추구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시기는 중국 북경의 티베트 전문연구기관인 「藏學研究中心」과 라싸의 「西藏學會」가 설립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13) 「西藏研究會訊」은 훗날 「民族研究會訊」(Newsletter on Ethnic Studies)으로 개명한다.

14)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소장 龔煌城이 담당하였다.

15) 문화대학 역사연구소 교수 王吉林이 담당하였다.

16) 정치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張逐剛가 담당하였다.

17) 정치대학교 민족학과 부교수 張駿逸가 담당하였다.

18) 하지만 변정연구소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기획하였던 『中國邊疆研究著作目錄』의 편집, 변정연구 장학금 설립, '중국변강학술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변정연구 센터'의 설립은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써 최근 티베트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몽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邊政公論』이나, 몽장위원회가 지원하고 변정협회에서 주관하는 『中國邊政』 등에는 비록 적게나마 학술 논문이 실리지만, 대부분의 글들이 대만 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르므로 학술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 하겠다. 이외에도 정치대학의 「東亞研究所」와 「國家發展研究所」(前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등의 연구소 발행지 『東亞季刊』이나 『中山人文學報』 등을 통해서 티베트의 정치나 현황 등을 소재로 글이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 정치대학 산하 「國際關係研究中心」¹⁹⁾의 주요 발행물인 『中國大陸研究』와 『問題與研究』 또한 티베트의 정치와 현황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Ⅲ. 대만의 티베트연구(藏學) 학자군(群)과 연구경향

1. 학자군의 출현

대만에서 티베트에 관한 문제의식과 담론은 1960년대 ‘변강역사’ 혹은 ‘변강민족’의 연구 속에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周昆田의 『中國边疆民族簡史』와 李符桐의 『邊疆歷史』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본서를 통하여 대만에서 처음으로 중국 변강의 역사를 통론성질로 정리하고 소개하였다. 이 책은 이후 劉義堂의 『中國邊疆民族史』(劉義堂, 1969)라는 더욱 섬세하고 체계적인 변강민족사를 저술하는데 그 윤곽과 기초를 제시하였다. 이 안에서 티베트의 민족과 역사는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중 劉義堂의 저서 『中國邊疆民族史』는 초기 학자들 중에서 가장 세련된 민족사 서술방식의 형식체계와 연구정신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만의 초창기 변강 연구와 그 안에서 티베트연구를 시도한 학자들로는 周昆田, 高長柱, 凌純聲, 芮逸夫, 歐陽无畏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芮逸夫와 歐陽无畏는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티베트 연구자들의 스승이다. 芮逸夫는 오래 동안 대만문화대학교의 ‘민족 및 화교연구소’(이하 민화소)에서 재직하면서 변강속의 티베트 역사에 관한 수업을 주도하였다. 그의 저서 『唐代南詔與吐蕃』(芮逸夫, 1960, 46-79)는 그의 관심영역을 대변해주는 대표작이다. 오늘날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티베트역사 전문가 王吉林도 그의 제자이다. 왕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 『唐代南詔與李唐關係之研究』(王吉林, 1976)을 芮逸夫의 지도하에 완성하였고 학위를 받은 후에는 문화대학교 ‘민화소’와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에서 티베트사 수업을 담당하였다.

歐陽无畏는 대만 장학의 아버지로 추존 될 만큼 뛰어난 학술성과 개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자 라마승이다. 歐陽无畏의 개인 이력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중국 江西 興國사람(1914년 출생)으로 중국 동북의 馮庸대학 정치학과를 졸업(1930)하고 곧바로 티베트로 들어가 黃教의 대표적 사원인 라싸의 ‘哲幫寺’로 출가하여 「果茫扎倉學院」에서 티베트불교를 공부하였다. 사원에서 ‘君庇極美’(Chos vphel vjigs)라는 법명을 받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티베트불교를 공부했다.

19) 본 연구중심의 「大陸研究組」는 중국의 변강현황과 대외관계 및 티베트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오랜 동안의 수양으로 티베트불교의 박사라고 칭해지는 '格西'(周炜, 2001, 457-458)²⁰⁾의 학위를 획득한 후 1954년 대만으로 들어왔다. 歐陽无畏는 인생의 후반기를 대만에서 학문적 열정으로 전환하여 티베트의 전면적 교학을 시작한다. 1959년 그는 대만정치대학교의 邊政학과에서 藏語와 티베트 역사 강의를 시작으로 그의 티베트연구와 후학양성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張駿逸, 2000, 2-12) 그가 대만에서 20여 년간 강의한 과목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전문적이며 심오한 과목으로 평가받는다. 예컨대 티베트 고전문법에 관하여는 《松居巴》, 《大今居巴》, 《司徒講義》 등이 있으며 티베트 희극에 관한 내용으로는 《蓮花林的故事》, 《色日仙女傳》 14대 달라이 라마의 《吾土吾民》 5대 달라이 라마의 《西藏王臣記》 종교와 정치 방면의 《西藏政治史》, 《西藏佛教史》, 《世界廣說》 등이다.(蕭金松, 1986, 14) 이러한 교학의 과정 중에서 대만의 장학 연구, 즉 티베트의 종교, 정치, 문화, 문학, 사상, 예술 등은 새로운 연구영역과 발전의 단계로 접어든다. 따라서 오늘날 대만의 장학을 이끌고 있는 연구자들은 모두 이 시기 歐陽无畏의 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蕭金松, 徐新登, 張駿逸, 陳又新, 胡進衫, 林冠群, 呂秋文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세력의 특징은 스승의 엄격한 티베트 스타일의 수업방식과 교학에 영향을 받아 모두 티베트어에 능숙하며 티베트원전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²¹⁾ 대륙에서 이미 번역된 문헌을 재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원전을 독해하고 번역하는 능력을 배양한 이 연구세력은 당대 대만의 티베트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티베트 원전을 필요로 하는 불교사나 역사 방면에 있어서 학술적 성과가 특히 뛰어났다. 때문에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이들 신진 연구 집단에 의해서 1990년 후반까지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냈다.

2. 전문가 집단의 활동과 세부 연구영역

1990년대부터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탄력을 받는다. 학교와 관련연구소의 개방적인 학풍과 정부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신진 연구 집단의 티베트 연구는 전 방위에 걸쳐서 연구업적을 드러내게 된다. 이 중 몇 명의 학자는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林恩顯, 蕭金松, 張駿逸, 陳又新, 林冠群, 王吉林, 呂秋文, 孫天心, 廖淑馨 등이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티베트의 역사와 종교 사회문화 및 현황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들이다. (아래의 도표참조)

20) 라마승에서 활부로 되는 최종 시험을 통과하면 주어지는 학위 명칭이다. 라마승들의 최종 관문인 '格西' 시험과목은 티베트불교의 기본경전인 <量釋論>, <現觀莊嚴論>, <入中論>, <戒律本論>, <俱舍論> 등이다. 시험에 통과되어도 학위는 성적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다음과 같다. ①拉然巴 ②磋然巴 ③阿林金巴 ④多然巴 등이다. 이상의 4등급 중 1등과 2등은 라싸의 3대 황교사원에서 학위가 수여되며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 3등과 4등은 라싸 이외의 지역, 예컨대 칭해(青海)나 감숙(甘肅)지역의 대형 사원으로 파견된다. 그곳에서 거주하며 어린 라마승들의 스승으로 살게 되거나 사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 歐陽无畏의 제자들 중에서 대만의 티베트불교의 권위자들이 탄생하였는데 蕭金松, 林崇安, 陳玉蛟, 陳又新 등을 들 수 있다.

대만 티베트연구의 주요학자와 대표 저작물

세부영역	학자	주요 논문과 저작물	비고
티베트 역사	扎奇斯欽	『邊疆教育』, 『北亞游牧民族與中原農業民族之間的和平戰爭與貿易之關係』, 『蒙古論叢』, 『蒙古與西藏歷史關係之研究』	
	胡耐安	『邊政通論』, 『中國民族志』, 『邊疆宗教』	
	王吉林 ²²⁾	『唐代南詔與李唐關係的研究』, 『唐初與吐蕃關係之發展』, 『吐蕃信史時代的開始-松贊干布時代的吐蕃及其與唐的關係』, 『從大非洲之役到中宗時代與吐蕃的關係』, 『唐玄宗時代唐與吐蕃的戰爭』	
	林冠群 ²³⁾	『吐蕃贊普松德贊研究』, 『吐蕃贊普墀松德贊研究』, 『藏族族源之商榷』, 『唐代吐蕃史料研究』, 『唐代吐蕃政局的剖析』, 『唐代吐蕃政治制度研究』	
	呂秋文 ²⁴⁾	『中英西藏外涉始末』, 『中俄外蒙古交涉始末』, 『清季英俄在西藏之分析』, 『近年來達賴喇嘛海外活動之分析』	
티베트 종교	蕭金松	『世界佛教名著譯叢』, 『清代駐藏大臣之研究』, 『西藏文典'松居巴'譯註稿』, 『宗教對西藏社會的影響』, 『大陸民族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 『西藏文法典'松居巴'及大金局巴'研究』	
	陳又新 ²⁵⁾	『元朝時期薩迦派略述稿-以薩班八思巴叔侄爲主』, 『第十三世達賴喇嘛新政之研究』, 『漢藏譯文對照六十頌如理論』, 『月稱著六十頌如理論釋藏文漢譯』	
	林崇安	『佛教因明理論的探討』, 『前弘時期印度與漢地佛教之傳入西藏與影響』, 『西藏佛教後弘時期之源流與思想』, 『漢藏因明的傳譯研究』	
티베트 언어 문자	幸勉 ²⁶⁾	『古代藏語和中古漢語語音系統的比較研究』, 『簡介古藏語輔音群對現代拉薩話聲調的影響』, 『藏語的語音的特性』, 『藏漢語詞的比較』	
	孫天心 ²⁷⁾	『談安多藏語若爾蓋話的一種特殊語音現象』, 『安多地區的民族及語言』, 『中印邊界「麥克馬洪」地區的民族及語言』	
	龔煌城 ²⁸⁾	『藏緬語的格助詞』, 『從漢藏語的比較看上古漢語若干聲母的擬測』, 『從漢藏語的比較看漢語上古音流音韻尾的構擬』	
티베트 현황	林恩顯	『突厥研究』, 『清朝在新疆的漢回隔離政策』, 『政大邊政,民族學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 『邊政通論』, 『中國邊疆研究理論與方法』	
	張駿逸	『元朝與西藏薩迦派關係之研究』, 『忽必烈以後元與薩迦派的關係』, 『薩迦派的帝師世系』, 『蒙藏早期關係之研究』, 『宣政院與吐蕃』, 『民國以來西藏與中央的關係』, 『美國在西藏問題上的角色分析』, 『達賴喇嘛訪俄背景之分析』	
	廖淑馨 ²⁹⁾	『對中共制頒西藏地方性法規的研析』, 『文革前中共中共治藏政策的研析』, 『十四輩達賴喇嘛與西藏』, 『論西藏的經濟改革』, 『西藏現況綜合分析』, 『美國與西藏的關係(1942-1980)』	

22) 중국문화대학 사학과 박사. 현재 중국문화대학 사학과 교수이다.

23) 林冠群은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邊政研究所) 석사반 연구생 시절, 蕭金松으로부터 藏文의 기초를 습득하고 劉義棠, 林恩顯교수로부터 '회족사'와 '돌궐사'수업을 지도받았다. 이는 그의 석사논문 『以李唐, 回

林恩顯은 일본유학과로 원래 '신강'과 '회족'을 전공했지만 초대 변정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티베트의 현황을 소개하는데 주력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저서는 『邊政通論』이다. 이는 1987년 대북 화태서관(華泰書管)에서 출간한 것으로 27년 전 그의 스승인 胡耐安의 『邊政通論』(1960)을 이론상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 부분에 관한 서술은 胡耐安보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胡의 저서에서는 7장(라마교 원류)과 10장(티베트)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지만 林의 저서에서는 5장(티베트)에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蕭金松은 陳又新과 함께 티베트 언어와 종교 방면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그는 달라이 라마가 대만을 방문하면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티베트어에 능통하다. 세부영역은 티베트불교의 원전해독이다. 그는 1972년 周昆田교수의 지도아래 『清代駐藏大臣之研究』라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졸업하고 인도와 네팔로 유학을 다녀왔다. 이는 스승 歐陽無畏의 교학방식을 따른 것이다. 초창기 변정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할 때, 티베트연구의 부흥을 주도했다. 정치대학에서 티베트 언어와 티베트불교 과목을 담당했으나 1998년 「佛光大學佛教文化研究所」로 이직했다.

林冠群은 티베트의 전신인 '吐蕃史(토번사)'의 권위자로 꼽힌다. 그의 『吐蕃贊普松德贊研究』는 唐蕃의 역사관계와 토번의 법왕을 주제로 한 대만 최초의 학위(박사)논문이다. 초창기 티베트 역사에 관한 전문가는 王吉林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연구 영역은 그의 제자인 林冠群에게 전승되고 심화된다. 林은 석/박사 학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연구 논문과 저서가 당과 토번의 관한 연구이다.(도표 참조) 그의 세부 연구영역은 당대토번의 史料文獻, 인물연구, 정치제도, 사회구조, 대외관계 등 전 방위에 걸쳐서 포괄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연구 방법이다. 그는 티베트어 원전과 敦煌文獻, 吐蕃碑銘, 教法史料, 埋藏本古籍 등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한족의 증문사료와 비교, 대조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2007년에는 그동안 그의 당대 토번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북경에서 『唐代吐蕃歷史與文化論集』³⁰⁾으로 출간(북경 중국장학연구센터의

紘, 吐蕃三邊關係之探討』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 후 林冠群은 중국문화대학 '史學研究所' 박사 반에 진학하여 王吉林교수로부터 唐史를 공부하고 당시 대만최고의 티베트학자 歐陽無畏의 티베트 교학방식으로 진행된 '西藏史'수업에 심취한다. 이런 공부과정 속에서 林冠群은 唐蕃의 역사적 관계에 흥미를 느끼며 본격적으로 당번의 역사와 관계사에 관한 문헌을 탐독한다. 1987년 『吐蕃贊普松德贊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唐代吐蕃을 일생의 학문적 영역으로 구축하고 대만의 '國科會' 장학금을 획득하여 미국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의 알타이학과에 방문 교수자격으로 유학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인디애나 대학 티베트학의 대가인 Christopher Beckwith 교수로부터 '古藏文'(고대 티베트문)을 지도받으며 인디애나 대학 도서관에서 수많은 吐蕃史 문헌을 접하게 된다. 그의 학문적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대륙의 저명한 티베트 학자 陳慶英으로부터 또다시 古藏文과 西藏史 방면의 지도를 받았다. 그의 이러한 唐代吐蕃史 연구는 오늘날까지 20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학계에서 그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24) 정치대학교 외교연구소 석사. 일본 東洋대학 박사. 현재 중국문화대학 정치연구소 소장이다.

25)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 석사. 현재 대만 蒙藏委員會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中華佛學研究所'에서 藏文을 강의하고 있다.

26) 대만사범대학 국문연구소 박사. 현재 사범대 국문연구소 부교수이다. 언어학, 성운학, 티베트어 과목을 맡고 있다.

27) 대만사범대학 영어연구소 석사. 현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28) 독일 언어학박사. 현임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연구원 겸 언어학조 소장이다.

29)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 석사. 현재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중심 부연구원이다.

추진 작업 중의 하나인 ‘西藏通史’총서 시리즈)된 학술적 성과는 대만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중국藏學界에서 인정받은 토번史연구로 평가된다. 출간된 그의 저서는 그동안 唐藩史연구의 한계(방법과 연구역량 그리고 사료의 확보 등)를 거의 해결한 연구 성과로 중국학계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만학자 張駿逸는 民國66년(1977년), 변정연구소 周昆田의 지도하에 『乾隆末年廓爾喀與西藏軍事衝突之始末及其影響』이라는 석사논문을 완성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元朝與西藏薩迦派關係之研究』로 ‘藏學’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만에서 소위 ‘장학’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학자로 인정된다. 이 논문은 藏文, 蒙文, 漢文의 사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외학자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고 있다. 張駿逸는 귀국 후 대만에서 이 분야에 관하여 계속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도표 참조)그는 초창기 대만 몽장위원회의 책임자를 역임할 정도로 정부의 신임을 받다가 정치대학 민족연구소로 초빙되었다. 그는 민족연구소로 이직 한 후 티베트 관련 학회와 사업기획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민족학과와 연구소 내에서 『西藏專題』, 『西藏藝術』, 『西藏現況』, 『西藏的社會與文化』 등의 과목을 맡고 있으며 蕭金松과 함께 정치대학의 대표적 티베트 학자로 성장하였다.

상술에서 소개한 소위 2세대 티베트 연구자 집단들에 의해서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활성화되고 심화되었다. 그들의 연구업적은 90년대 중반까지 전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도표 참조)

대만 티베트 관련 출판물의 분포도 (1986-1995)

유형	수량	백분율(%)
개론	25	4.65
민족(민속포함)	7	1.49
역사	123	22.86
지리	16	2.97
정치	124	23.05
군사	7	1.30
경제	8	1.49
교육	6	1.12

30) 본서는 과거 林冠群의 ‘唐代吐蕃史’연구업적 중 11편의 논문을 선택하여 편집한 것이다. 이중 3편의 논문은 당대토번사의 史料문제를 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3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論唐代吐蕃史及其史料」 (2) 「敦煌本吐蕃歷史文書與唐代吐蕃史研究」 (3) 「漢文史料記載唐代吐蕃社會文化“失實部分”之研究」 등이다. 이 3편의 논문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티베트 원문사료의 중요성이다. 그는 대만학계의 티베트연구의 수준이 해외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티베트어나 티베트문헌을 해독하고 분석 할 수 있는 인재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문사료의 의존은 결국 토번의 역사적 중요성과 상호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토번의 사료, 즉 ① 藏文手卷寫本 ② 吐蕃簡牘 ③ 吐蕃金石銘刻 ④ 埋藏本古籍 ⑤ 教法史料 등을 기본적으로 참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	6	1.12
종교	128	23.79
문화	6	1.12
예술	37	6.88
어문	44	8.18
합계	537	100

상술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까지 티베트 연구는 역사, 정치, 종교가 압도적인 연구 성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살펴보면, 역사와 정치, 종교 방면이 전체의 70%이상을 점유하는데 이는 신진 연구 집단의 주요 관심영역이었다. 특히나 이 시기 연구 성과의 특징은 티베트 정치에 관한 논문과 저술이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대륙의 상황과 비교하자면 역사와 종교는 동일하게 중요시되었고 대륙은 어문을 대만은 정치부분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대륙에서는 문혁(文革)의 영향으로 민감한 부분인 정치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대신 중국의 학계는 "티베트와 중원과의 관계사" 또는 "티베트의 역사지위"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하여 티베트의 역사가 중원의 일부임을 강조하였다. 역사분문에 있어서 대만은 '중고경금(重古輕今)'의 현상을 보여준다. 어문의 연구 성과가 많은 이유는 장어(藏語)나 장문(藏文)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드러내 준다. 이 시기 티베트 역사 영역은 蔣吉發, 王吉林, 林冠群등이 종교분야는 蕭金松과 陳又新, 林崇安등이, 정치와 현황은 張駿逸, 憑明珠, 楊嘉銘등이 왕성한 연구 성과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모두 歐陽无畏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티베트 전문가들이다.

IV. 대만의 티베트연구(藏學) 변천과 동향

1990년대 14대 달라이 라마의 국제적인 부각, 중국 경내 티베트지역의 끊이지 않는 분쟁, 대륙의 개방정책, 영안의 학술교류 증진과 이로 인한 대륙출판물의 대만 유입 등으로 인하여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티베트 연구에 미묘한 변화도 발생했다. 첫 번째는 명칭의 변화이다. 대만은 원래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학회에서 '西藏史'를 사용했고 '藏族史'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에 들어와 '서장사'에서 '장족사'로 명칭이 전환된다. 또한 초창기 대만의 티베트 연구를 주도했던 정치대학의 '변정연구소'가 1990년대에 들어와 '민족연구소'로 개명한다. 물론 연구소 내에 개설된 '서장사 연구'라는 과목 또한 '장족사 연구'로 바뀐다. '서장'에서 '장족'으로 명칭의 전환은 미묘한 차이점을 가진다. 즉 서장은 중국의 일부라는 영토의 개념이 강한데 반해 장족은 역사공동체인 티베트민족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이로 인해 당시 중국의 학자들은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에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티베트원전 사료의 충실한 활용으로 대만 티베트의 연구는 질과 양적으로 많은 업적을 축적하였다. 특히나 '唐代吐蕃史'연구는 기존의 오류를 수정할

만큼 수준이 일취월장 하였다. 세 번째는 양안의 학자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 졌다. 대만의 학자는 대륙의 현지답사를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대륙의 학자는 대만의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대륙의 저명한 티베트학자 陳慶英과 王堯의 대만방문은 대만학자들의 안목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대만 정권의 교체와 본토화의 요구 속에서 학계와 민간단체는 현실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티베트연구는 정체를 맞았다. 당시 문화대학 화교와 민족연구소는 모든 학술 활동이 멈추었으며 정치대학 민족연구소 또한 연구의 침체와 연구생의 숫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나 티베트와 몽고의 연구생은 거의 없을 정도로 후학의 연속성이 위기를 맞았다.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민족연구소 티베트 연구조의 연구생은 매년 1-2명만이 지원을 했으며 그 숫자는 증감하지 않았다. 본문의 8쪽에서 제시된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³¹⁾ 석사논문분류 통계표(1971-1992)와 비교하여 볼 때, 1993-2010년도까지의 논문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우선 1993-2007년 사이에 대만에서 나온 티베트 관련 논문은 12편 정도이다.(아래의 도표 참조) 즉 1년에 1편의 연구 성과도 안 되는 실정인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종교와 역사분야만 다루어질 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 티베트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1993-2007)

졸업년도	연구생	논문제목	지도교수
1993	黃奕彥	《入菩薩行論》(靜慮品) 土登卻札注疏譯注	蕭金松
1993	羅中展	藏族之唐卡藝術	張駿逸
1995	吳雪嬌	第九輩班禪喇嘛與中央政府關係之研究	王吉林
1996	鄭怡甄	藏戲《諾桑王傳》人神關係之分析	張駿逸
2000	曾淑娟	藏傳佛教《兜率天上師瑜伽法甚深教導》漢文譯註	蕭金松
2001	劉哲安	止貢寺與止貢噶舉派教法	蕭金松
2001	沈赫周	中共改革開放後西藏自治區旅遊經濟發展之研究	張駿逸
2005	張博偉	在台藏族社會適應問題之研究	張駿逸
2005	沈赫周	中共改革開放後西藏自治區傳統文化變遷與發展研究-以天葬與藏戲爲例	張駿逸
2007	張昆晟	源自非佛教系統的藏族神靈信仰觀念研究：以寧瑪派常用祈祀典籍作爲介質依據之探討	張駿逸
2007	斯安竹	海外藏族的文化變遷與適應-以達蘭薩拉的藏族爲例	張駿逸
2007	董凱書	藏傳佛教噶瑪噶舉派僧侶「修行」研究-以西藏江達縣宗南寺爲例	張駿逸

31) 민족연구소의 논문범위와 방향은 대체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中國少數民族 (2)台灣原住民 (3)台灣客家人 (4)國外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최근에는 중국소수민족에서 대만 원주민 토착민연구로 무게중심이 전환되고 있다. 그중 대만 '客家'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적지 않은 관심과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대만 티베트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2007-2010)

졸업년도	연구생	논문제목	지도교수
2007	張昆晟	源自非佛教系統的藏族神靈信仰觀念研究：以寧瑪派常用祈祀典籍作為介質依據之探討	張駿逸
2007	董凱書	藏傳佛教噶瑪噶舉派僧侶「修行」研究－以西藏江達縣宗南寺為例	張駿逸
2007	尤天鳴	山原鄉與平原鄉排灣族在民族發展上的比較：金峰鄉 VS 太麻里鄉	林修澈
2007	陳欣慧	印尼亞齊客家人之研究	陳鴻瑜
2007	蕭喻文	原住民經濟變遷與觀光資源的自主治理：以新光、鎮西堡民宿事業發展為例	顏愛靜 張中復
2007	陳佳鑫	從日本到台灣：新北投溫泉的在地化	藍美華
2007	劉俐廷	明清穆斯林漢文著述中的性別觀	張中復
2008	宋神財 Alow·Hola	原住民族小學師資培育政策研究：以屏師校園集體原漢衝突事件為中心的探討	張駿逸
2008	陳怡欣	滿語構詞法比較研究	莊吉發
2009	呂青華 (博)	琉球久米村人的民族學研究	林修澈
2008	郭祐慈 (博)	台東平原的農業民族：馬蘭社阿美族社會經濟變遷：1970-1874年	浦忠成 張中復
2008	李巧寧	桃園縣大溪鎮中庄新村港澳移民的族群邊界與認同	藍美華
2008	高理忠	民族音樂教育對泰雅文化復振影響之研究：以復興鄉為例	張駿逸
2008	席蓆·嘉斐弄	蘭嶼天主教傳教史：一個立基於民族誌的研究	張駿逸
2008	林文德	霧社事件影響賽德克三群間族群關係研究	傅琪貽
2008	王嘉棻	漳泉客三系移民與彰化平原媽祖廟	林修澈
2009	廖彥琦	賽夏族的社	林修澈
2009	吳國聖	十七世紀台灣Favorlang人研究	翁佳音
2009	林欣美	族群經濟與文化經濟的對話－以中壢火車站和忠貞市場東南亞商店的比較研究	康培德
2009	陳嫻芳	德克達雅 (Tgdaya) 群的民族發展	林修澈
2009	于嘉明	在台泰緬雲南籍穆斯林的族群認同	張中復
2009	嫣然	穆斯林婦女宗教意識的自覺與社會互動－以當代臨夏的宗教女校為例	張中復
2009	楊慧娟	回族伊斯蘭教育的多元變遷與適應－以當代蘭州「穆斯林文化復振運動」為例	張中復
2009	鄭月裡 (博)	馬華穆斯林的文化變遷與社會適應	陳鴻瑜 張中復
2010	謝素珍	三重埔的中南部移民及其宮廟	林修澈

두 번째, 2007년-2010년, 3년간 민족연구소에서 티베트관련 학위논문은 2편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대만 원주민(토착)에 관한 논문은 무려 14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학위 논문의 70%를 넘기는 수준이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대만 전체 티베트 연구 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이에 관하여 본 연구자는 2가지 대내외 학술환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90년대 후반부터 민족연구소 내의 학술경향이 '중국의 소수민족'에서 '대만 토착 원주민연구'로 전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연구소내의 젊은 학자들이 대만의 정치상황(본토화)과 자신들의 학술적 가치관을 접목하고자 했던 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족연구소는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그동안 추구하던 중국 소수민족 연구의 변화를 추구한다. 즉 그동안 커리큘럼이나 졸업논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변강의 역사나 종교, 문화의 연구가 대만내지의 원주민 연구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된 것이다.³²⁾ 여기에는 과거 연구소의 모든 행정과 연구 방향을 결정하였던 1세대 교수진들의 은퇴와 더불어 이를 이어받은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2세대 연구진들 간의 학술연구 관점과 대상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중국의 소수민족이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대만 원주민연구'가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1세대 교수진들이 扎奇斯欽, 周昆田, 劉義棠, 林恩顯, 唐屹였다면 2세대 교수진들은 林修澈, 張中復, 蕭金松, 張駿逸, 藍美華³³⁾張慧瑞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이들 중 林修澈, 張中復³⁴⁾, 張慧瑞³⁵⁾는 대만 원주민 연구를 추진하고 중시하는 중심 학자들이다. 특히나 이들 중 林修澈는 1978년 方豪교수의 지도아래 『蒙古帝國本部可汗大統承襲之研究』의 석사논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역시 蒙古史를 전공하고 돌아왔으나 자신의 전공 영역과는 다르게 대만 원주민의 정체성과 문화 살리기에 주력하는 이례적인 학자로 구분된다. 그의 기획과 주도아래 대만의 원주민 연구는 크게 활성화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 대만의 정치상황은 민족연구소의 대만 원주민연구에 호재로 작용한다. 바로 대만 민주주의 선봉으로 불리 우는 민진당 정권의 당수 陳水扁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대만 남부출신의 내지인으로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었다. 陳水扁의 대만 독립론과 원주민 살리기 운동은 민족연구소의 연구경향과 그 맥을 같이하였다. 따라서 민족연구소는 기존의 중국 변강 연구의 연구진과 커리큘럼의 변화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의 원조 속에서 국제적인 대만 원주민 학술회의와 출간을 주도하게 된다. 또한 민족연구소 내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원주민 연구를 위한 「台灣原住民研究中心」³⁶⁾를

32) 민족연구소에서 티베트 영역을 담당했던 蕭金松은 연구소내의 원주민 위주의 커리큘럼과 교/강사 선임의 불투명성에 강한 불만을 품고 1997년 「法光佛教文化研究所」로 이직했다. 또한 연구소내의 마지막 남은 티베트 전문가 張駿逸은 2008년 교수직을 그만두고 객원교수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대만의 티베트 연구를 주도했던 민족연구소는 현재 티베트 관련 현직교수가 없는 셈이다. 이는 향후 민족연구소내의 티베트 관련 과목이나 연구생 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3) 미국 하버드대학 몽고학 박사. 현 민족연구소 부교수이다. 세부영역과 담당과목은 '민족문제' '민족관계 연구' '민족문제와 국가안전' '蒙文 원어 강독'이다.

34) 정치대학교 역사학과 박사. 현 민족연구소 소장이다. 세부영역과 담당과목은 '중국 민족사' '중국 민족이론 연구' '중국 무슬림민족 사회와 문화' '위구르 언어' 등이다. 林修澈교수와 더불어 연구소 내에서 대만 원주민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35) 호주 인류학 박사. 현 민족연구소 부교수이다. 세부영역과 담당과목은 '대만 원주민 연구' '대만 원주민 언어' '박물관학' 등이다.

건립하였다. 또 하나, 최근 대만의 학계에서는 티베트연구는 과거 역사나 종교를 문헌 중심으로 해독하는 인문학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사회과학(인류학과 사회인류학)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대만의 몇몇 학자들은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서방 민족사연구의 현대이론인 ‘변경연구’(border or frontier study), ‘종족이론’(ethnicity theory), ‘종족경계’(ethnic boundary)등의 이론을 연구방법으로 도입하여 티베트의 정체성과 문화변동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謝世忠과 王明珂등을 들 수 있다. 특히나 王明珂³⁷⁾(王明珂, 1997)의 연구방법과 관점³⁸⁾은 대만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우선 그의 연구관점이 기존 민족연구와는 다르다는 점이며 서방의 연구이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王은 기존 티베트연구에서 최근 羌族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집중연구로 대만학계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결국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최근 대만의 티베트연구와 후학양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량의 연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 론

당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만의 티베트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향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초창기 역사와 종교분야의 인문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0년대 들어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많은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관련된 연구기관이 대부분 사회과학원의 산하의 학과나 부설연구소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연구 환경이 대륙에 비하여 자유롭다. 학술 기관이나 학교의 진폭적인 지원 아래서 이루어지는 티베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 매우 존중되며 비판적 연구내용 또한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연구주제와 내용면에서 다양성과 독창성이 담보되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의 논문들이 유사한 논리와 주장이 반복되는 반면 대만의 논문들은 저마다 견해와 주장이 다르다. 이는 학교와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의 정체성과 학문은 별개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현대 티베트 연구자들은 1세대 연구자들보다 대부분이 유학을 경험한바, 서방세계의 분석방법이나 이론의 적용 능력이 탁월하다. 이는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6) 여기에는 林修澈, 張中復교수가 중심이 되어 대만 원주민 역사와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37) 1979년 대만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재직 중이다.

38) 王明珂는 티베트의 연구에 있어서 ‘변경적 관점’(frontier angle)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전형적 관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王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역사의 기록이나 연구에 있어서 중국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정통적, 전형적 관점으로 기록하는 역사기억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록의 내용도 권력을 가진 일부 통치자들을 위주로 하는 기록을 중심으로 했으며 수많은 개인들과 변경지역의 사건과 역사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변경의 역사서술 또한 한족의 역사안으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즉 한인의 전형적 역사 기록에만 의존하는 일방적 편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변경지역의 소수민족 역사의 서술은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지답사와 인터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지조사는 다원적이고 변경적이고 미시적이기 때문에 전형적 관점에서 놓치거나 잘못된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티베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연구방법이 티베트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티베트종교 전문가인 蕭金松은 자신이 인도와 네팔에서 유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답사와 체험을 중요시한다. 티베트연구는 자료를 분석하고 통계화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러한 티베트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현실적 측면과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가 미묘한 공통점을 갖는 관계로 대만의 티베트의 연구는 양안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학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만학계에서 여전히 비주류학문으로 암묵되고 있으며 따라서 후속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연구대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지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변강, 특히나 티베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후속세대들이 감소하는 경향은 매우 분명하다. 그 주요한 이유는 본 연구가 다른 학과나 연구소의 졸업생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취업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륙에 비해 학계나 행정인력 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이는 후학의 연속성에 적지 않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당대와 현대를 거쳐 대만 티베트 연구를 주도해온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내의 연구동향과 중점영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반세기 동안 대만의 티베트연구를 주도했던 민족연구소가 내부사정과 연구자 개인의 학술경향으로 인해, 티베트연구와 출판물 그리고 전문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티베트 연구와 학술기획을 담당했던 티베트 전문가 張駿逸과 蕭金松의 이직과 퇴직의 후유증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된다면 이는 향후 대만 전체 티베트연구의 성과와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이동률(2005). “중국의 티베트연구(藏學) 동향과 티베트 정책”. 『中蘇연구』. 통권 107호, pp. 119-141.
- 김성수 외 공저(2008). “중국 티베트학의 성립 배경과 티베트사 서술의 특징”. 『중국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서술』, pp. 147-190.
- 林恩顯(1989). 『邊政通論』. 台北: 華泰出版社.
- 劉義堂(1969). 『中國邊疆民族史』. 台北: 台灣中華書局.
- 周炜(2001). 『活佛轉世与神秘西藏』. 台北: 先智出版社.
- 林冠群(1987). 『中國文化大學史學研究所博士論文』. 台灣: 中國文化大學.
- 王明珂(1997). 『華夏邊緣-歷史記憶與族群認同』. 台灣: 允震文化公司.
- 王吉林(1976). 『唐代南詔与李唐關係之研究』. 台北: 中國學術著作獎委員會.
- 張駿逸 主編(2000). 『歐陽无畏教授逝世八週年紀念論文集』. 台北: 蒙藏委員會.
- 王吉林(1988). 『中華民國蒙藏學術會議論文集』. 台北: 中國文化大學 蒙藏學術研究中心.
- 王堯(1989). “藏學研究台灣”. 文刊『西藏研究』 제2기, pp. 119-128.
- 林恩顯(1989). “近三十年來中國大陸學者的西藏研究分析”. 『西藏研究論文集』 제3집, pp. 305-313.
- 林恩顯(1993). “民族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 『民族學報』 제20기, pp.182-185.
- 林恩顯(1984). “國際中國邊疆學術會議紀要”. 『邊政研究所』 제15기, pp. 189.
- 芮逸夫(1960). “唐代南詔与吐蕃”. 文刊『西藏研究』, pp. 46-79.
- 蕭金松(1986). “歐陽无畏教授近年所授西藏學課程”. 文刊『西藏研究會迅』 제1기, pp.14-16.
- Chang Jiunn Yih(198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gol Yuan Dynasty and the Tibet Sa-akya Sec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of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Chang Jiunn Yih(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uan and the Sa-skya Sect after Kub-ilai Khan*, 文刊『政治大学边政研究所年報』, pp. 66-92.

Abstract

A Study of Tibetanology Taiwan

Sim, Hyuk Joo*

The central stages of 'Studying Tibet(藏學)' are China(中國) and Taiwan(臺灣) because they have far mo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cellent expert scholars, research institutes, and scholarly journals related to Tibet published from Tang Dynasty(當代) to the present than any other country or region. Although Korea has already shared outstanding dissertations on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for studying Tibet with China's academic world, getting to know Taiwan's research trends and developments, the other major stage, is insufficient. That is why this paper is required and wha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specific objectives and meanings. First, unlike China's study trends on Tibet already published and shared in Korea, Taiwan's research trends and characteristics, the other framework when studying Tibet, have not substantially produced any outcomes in Korea yet. Thus, this paper attempts to take a look at conditions and changes of Taiwan's study on Tibet from Tang Dynasty to the present and compare and contrast(異同) them to China's. Second, to conform the first objective, the paper tries to comprehend Taiwan's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trends by analyzing its major research institutes, scholar groups(群), and their dissertations. Third, this paper derives from a personal and scholarly reason that I received a degree for the study on Tibet in Taiwan. Therefore, there exists a chance that my subjective reasoning might threaten the paper's objectivity and balance. On the other hand, since my longtime study in Taiwan can bring out benefits to profoundly and specifically grasp Taiwan's study status on Tibet, my academic backgrounds will be more likely to lead the study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Fourth, today's study on Tibet is conducted in many fields. Even Korea has accumulated quite a few outstanding personal researches or joint researches among scholars. As a useful tool to introduce the study on Tibet to Korean academic world, this paper will help set up a milestone to activating and directing Korea's study on Tibet in the future.

■ 논문접수일 : 2010년 11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Research professor of Humanities Science Institute Myongji University